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 4차원의 영성 제목 : 믿음의 힘 성경 :

마태복음 8장 23-27절

23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따랐더니

24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25 그 제자들이 나이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마8:23-27)

사람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능력과 물리적인 능력, 인격적 감화력등이 있다. 물론 능력으로 따진다면 이 세계에는 수많은 능력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유독 사람에게는 영적인 능력도 있다.

그렇다면 정확히 영이란 무엇인가? (spirit, 루아흐, 네피쉬-프뉴마)

영이란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과 마귀에게 있다. (생물체에게는 바이탈리티-네피쉬, 물질에게는 에너지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각 영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있는 영을 자아라 한다. 각 사람에게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스스로를 결단하고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며 자주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사람의 영은 단독으로 존재하는게 아니라, 다른 영과 공존한다. 원래는 성령과 공존하도록 지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오직 사람은 성령으

로 충만해야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된다.

성령과 공존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예로 들 수 있다.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마치 사람이 성령과 공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물론 능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그러면 영의 특성은 무엇인가?

첫째로 영은 불멸이다. 오직 하나님만 영을 멸하실 수 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영은 살아있다.(유기체, 확산과 DNA 복제) 셋째로 영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넷째로 영은 존귀하다. 다섯째로 영은 초월적이다. 즉 삼차원이 아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이다.(물론 사차원은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곳이 삼차원을 포함한 삼차원 이상의 세계이다.- 그러나 물리적 과학적 세계는 삼차원에 한정되어 있다.) 여섯째 영은 창조적이다.(물론 사람은 창조하지는 못한다.-무에서 유를. 다만 주어진 세계 안에서 창조적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유에서 유를.)

영의 요소는 무엇인가?

첫째 영은 선과 악에 대한 의도이다. (원래 사람은 악을 모르도록 지음 받았으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악이 첨가되었다. 본래 사람은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분별하는 존재였다.)

둘째 영은 진리와 거짓에 대한 분별력이다.(거짓도 마찬가지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첨가됨)

셋째 영은 상상력이다. (여기에서 첫째와 둘째가 가미되면서 혼란하게 됨)

넷째 영은 생각과 말이다.

다섯째 영은 믿음이다.

여섯째 영은 사랑이다.

이런 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
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막9:23)

-이 말씀은 말 못하게 귀신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사람
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믿을 수 있다면’(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네가 믿을 수 있거든) (네가 나를 믿고, 내가 귀신을 내어 쫓을 능력
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전능하
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뜻)

(다만 여기에 악한 의도와 마귀의 시험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거기에 응하지 않으시는 성격이 있다. 이 사람은
그 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것을 본고로, 의심해서라
기 보다는 조심스러운 표현이었다. 예수님의 그 사실을 아시기에 고
쳐 주신 것이다.)

-믿으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전능한 힘이 생긴다는 뜻 아님.

-믿으면 믿는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뜻 아님.

-오히려 예수님의 전능하시다는 것을 네가 진짜로 확신하느냐고 반
문하심. 즉, 기적이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우리
에게 필수적인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이다.

풍랑이 일 수 있다. 그래도 그 풍랑이 예수님의 주무시는 배를 공격

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예수님은 깊은 잠을 청하시기 위해서 요람을 거세게 흔들고 계시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초죽음이 되었다.

급기야 예수님을 깨우기까지 하였다. 이때 예수님은 깊은 잠에서 깨어 나셨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실 리 없으셨다. 그래서 풍랑에게 그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처럼 무서워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느냐고 편장을 주셨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말씀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될 것이며, 오히려 풍랑을 즐기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믿음을 원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능력을 요구하시는게 아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함을 강조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자들은 창조적 영성을 발휘하여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그 능력을 구하라는 것이다. 믿고 구하면 주신다. 스스로는 속지 않기 위하여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라는 것이다.

영성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우리도 영적인 존재인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 약하고 유혹받기 쉽다. 또 내 속에는 욕심도 있고, 거짓도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어렵다. (가능하다는 것이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애를 낳을 가능성 있는것과 진짜 애를 낳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태초부터 우리의 영성은 성령과 함께 해야 가능하도록 지음
받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하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 제목 : 말씀 :